

## 영화를 이용한 한일대학의 교류수업 — 집단간 이문화이해의 시도 —

Dialogical Exchange Class Using Movies for Understanding  
between a Korean and a Japanese Univers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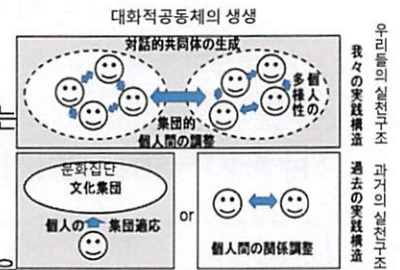
Kyoai Gakuen University 오 선아 [oh@c.kyoai.ac.jp](mailto:oh@c.kyoai.ac.jp)

교류 파트너: 국제아동발달연구원/ 동국대학교 최순자교수

## [한일] [중일]의 대학수업끼리 대화하는 교류수업

- 「동아시아의 대학수업을 잇는 대화공동체 에로의 참여과정에서 생성되는 집단간 이문화이해」 (2010~2012)

- 「대화를 통한 이문화이해의 교육방법을 둘러싼 실천 및 이론연구」 (2016~2018)



대화과정의 경험, 그속에서 생기는 문화인식(타자들)의 분석  
우리들 ~너네들(저사람들)

(山本 & 共同研究チーム作成図)  
야마모토&공동연구팀 작성

동아시아 비교문화론(東アジア比較文化論) (2004년부터 담당한 수업)  
원탁시네마법(円卓シネマ法)

### 日韓中越 日韓



山本・伊藤  
(200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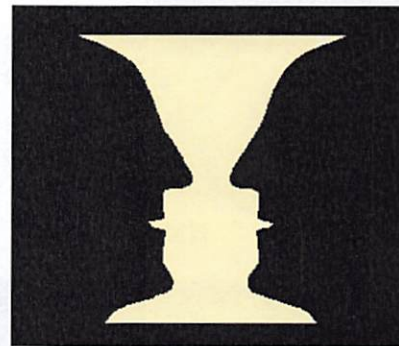
伊藤・山本  
(2011)

원탁시네마법이란(円卓シネマ法とは)

(서로다른 문화·생활배경을 갖고있는 사람들이)

같은 영화를 볼때 나타나는  
관점·해석의 엇갈림의 현상을 소재로  
이문화(타자들)의 존재에 대해서  
알아차리고 대화하면서 상호이해를  
시도 해가는 방법

## 르빈의 잔과 얼굴 ルービンの杯と顔



잔이 보인는가  
얼굴이 보이는가

보이는것(의미·가치)은,  
그주변/환경/입장  
과의 관계에 따라  
다르다.

## 수업진행방식: 동아시아 문화론 1학년 이상 수강가능 과목(수강생50명전후)

<1세트: 90분의 3회의 수업 x 4개의 영화>

- 1회:  
 ①도입설명導入説明(10~20분)  
 ②영화의 전반 시청(60~70분)  
 ③10cm x 10cm의 종이에 감상쓰기(5~10분)
- 2회:  
 ④영화를 끝까지 본다(30~40분)  
 ⑤제시된 테마에 대해 감상을 쓴다(5~10분)  
 ⑥그룹을 편성하여 의견교환(30-40분)  
 ⑦수업후 과제: 다른나라 사람들이 쓴 의견과 자료를 읽고 1000자 레포트 제출(4일이내)
- 3회:  
 ⑧그룹을 편성하여 레포트 발표교환, 교사의 해설강의  
 ⑨10cm x 10cm의 종이에 최종감상 쓰기

### 대화과정對話過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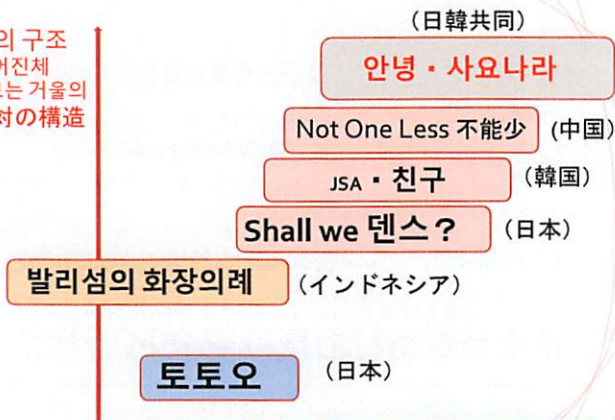
- 영화의 화면 스토리를 보면서 자기내의 대화
- ↓
- 렛스트/자료등 읽기 (다른 나라사람들의 시점)
- ↓
- 수강생간
- ↓
- 수강생과 교사

## 대화하면서 관계하면서 생각하기

對話しつつ、関わりつつ、考える



대칭의 구조  
(빠들어진체  
마주보는 거울의  
구조)対の構造



의도적으로 수업에 「대칭의 구조」를 넣어서  
<보이지 않음>을 <보임>으로 변화를 시도

정동체험  
情動体験

### ○일상생활의 습관이나 생각방식(1~3巡째)

Not One Less(中国)  
Shall we 댄스?(日本)  
친구(韓国)

### ○국가·정부·정치가 얽여있는(4巡目) 역사관련의 인식

안녕 사요나라  
(한일감상문 교환)

→ 「맞다-틀리다」가 아니라 正しい正しくない x  
「서로의 관점 감정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」  
互いの観点、感情、認識がどのように異なるのか

한일공동제작다큐멘터리영화~안녕사요나라~  
日韓共同制作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: あんによん・サヨナラ

- 한국의 민족분쟁연구소와 일본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공동제작
- 감독: 金兌鎰(韓國)氏와加藤久美子氏(日本)
- 주인공: 李熙子(63세의 한국인여성)
- 이희자씨의 아버지는 靖国神社에 합사되 있으며 그것을 취하기위해 소송중
- 이희자씨의 소송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古川雅基氏(일본인)와 많은 일본인 지원자들
- 이희자씨는 일본인 지원자들과 함께 전쟁피해자들 돕는 활동을 하고있다.
- 일본, 한국, 중국(타이완포함)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/인터뷰가 수록되 있다.
- 남경대학살기념관과 야스쿠니신사의 영상들도 나옴.

감상문을 참조·분석할때의 포인트  
感想文を参照・分析するときのポイント

- 「역사적사실인가, 옳은가 그른가」를 보는것이 아니고,
- 전쟁과 관련한 영화를 실마리로, 사람들의
  - 관점/입장의 차이
  - 개인내의 감정의 변화, 반응의 변화
  - 영화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있는 느낌이 드는 장면
  - 변명, 절실한 생각등의 종류

한일교류(감상문교환)수업 I (2010년)  
日韓交流(感想文交換)授業 I (2010年)

일본인 학생들이 · · 상처받는 느낌을 갖는 장면  
日本の学生が、きずつくと感じる場面

- 학생은 감상문만의 교류 感想文のみの交流
- 뉴스나 책에서만 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타자가 아니라, 「수업」이라는 상황에서 「중개자 교사」를 통해서 타자들과 교류
- 授業の枠組みのなかで仲介者講師を通して交流
- 관계를 해본적이 없는, 「지인의 지인」레벨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관계
- 일본인 학생 50명정도, 한국인 학생 5명정도  
감상문교환은 1그룹(5-6명분)  
한사람이 A4용지 1장이내의 분량

- 한신 대지진의 장면에서 이희자씨의 독백  
「당연한것이라고 생각했다, 일본은 천벌을 받은 것이다 · · ·」 「当然だと思った、日本は天罰をうけたのだ」
- 한국의 할머니들의 체험담을 얘기할때  
「아무리 친절하게 해줘도, 일본사람은 신용하지 못해 · · ·」 「いくら申請にしてくれても日本人は信用できない」
- 이희자씨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항의 하면서 큰소리를 칠때
- 같은 일본인으로서, 일본인의 행동에 상처받는 경우  
(전쟁 · 남경사건, 영화속에서 야스쿠니신사 앞에 있는 우익들의 모습)

한국학생들이 상처받는 느낌을 갖는 장면  
 韓国の学生がきずつくを感じる場面

- 야스쿠니신사 앞에서 「더러운 조선인은 돌아가라!」고 외치는 장면 「薄汚い朝鮮人は帰れ!」
- 야스쿠니신사 앞에서 이 희자씨를 지원하는 일본인 여성이 우익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폭력을 당할때 靖国神社の前でイ・ヒジャさんの支援する日本人が暴力をうけるとき
- 이희자씨의 아버지의 명령은 야스쿠니신사로부터 분리할수없다고하는 야스쿠니측의 논리
- 영화에서 소개되는 전쟁에 대한 시점  
 전쟁은 아시아를 해방시키기위해서 필요했고  
 당시는 한국인도 일본인이니까 징병은 당연한것

일본학생의 감상  
 日本人学生の感想

일본은 나쁘다(강)

- 가해의 나라에 태어났다
- 일본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못하겠다
- 침략국이라는 인식 강
- 다른 나라에 면목이 없다

일본은 나쁘지 않다(강)

- 일본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
- 다른 나라의 반일교육이 잘못된 탓이다
- 다른 나라의 잘못된 교육을 그대로 믿고 자국을 싫어하는 것은 자학이다

태어나면서부터 책망만 듣는 우리들의 입장도 이해해줬으면

- 역사를 남의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.
- 역사적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말것. 그렇지만, 너무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로한발씩 다가설수 있는것이 필요.
- 이런 나라에 태어나 버려서 지금까지도 책망만 듣는 우리들의 입장도 이해해 줬으면.

한국학생들의 감상  
 韓国学生の感想

일단 반응하는 신체

-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. 이것이 눈에서 나오는 것인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.
- 영상을 보고있는 내내, 그리고 다 보고 나서도, 욕이 입에서 멈추지 않고 나왔다.

한국측이 반성해야하는 것

- 일본의 양심적인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. 후루카와씨와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에 놀랐다.
- 우리나라에서는 매스컴이 일본의 나쁜 점만을 알리고 있었다.
- 일본의 문화는 좋아하면서도 일본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다.

일본이 인정했으면 하는 것

- 조선의 식민지화를 통해서 조선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본말전도.
-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강요했었다.
- 자기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는것,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는것은 더욱 부끄러운 것.
- 진지하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할수 없는 것인가.

교사의 최종강의

일본측에 요구日本側へ要求      한국측에 요구韓国側へ要求

- |   |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해국으로서의 인식을 갖는다.관계없다가 아니라, 역사적사건들에대한 지식을 갖는게 필요.(상대방의 입장을 이미지 해볼것)</li> <li>· 「모른다」「배우지 않았다」에 도망가지 않는다.좋은일 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.</li> <li>· 반일교육의 탓이라고 하기보다,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상상한다.</li> <li>·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배우지 않아, 한국인들과 지식의 양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것.</li> <li>· 자기나라의 매스컴만 의지 하지 말고 다양한 시점을 갖을것.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쟁에 의한일본인의 피해, 특히 일반 국민의 피해를 상상하기.</li> <li>· 일본나라의 자손으로 태어나, 일방적으로 책망만 계속 듣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이해 할것(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미지 해볼것).</li> <li>· 한국에서도 피해중심의 교육이 되고있는것을 알것.</li> <li>· 양심적인 일본인들도전쟁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것.</li> <li>· 자기나라 매스컴만 의지 하지 말고 다양한시점을 갖을것.</li> </ul> |
|---|---|

<보임—보이지 않음> 見える—見えない

대학생이 경험하는 감정·갈등의 변화의 공통성

- (1) 우선 자기들의 상처를 본다.(自分の傷を見る)  
(=상대방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)
- (2) 상대방의 감상문을 보고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 의식한다.(相手の傷を意識する)
- (3) 상대방이 자기들을 봐주고 있다고 느끼면  
→공생의 시점, 그 반대인 경우는 방어(방어)의 시점이 강해짐(共生の視点 OR 防御の視点)  
→상대의 시점도 의식한 상태에서, 자기들의 주장을 한다.(相手の視点を意識した上で、自分たちの主張)

한일교류(감상문교환) 수업 II (2016년)  
日韓交流(感想文交換)授業 II (2016年)

일본담당: 오선아, 대학생 5명  
한국담당: 최순자, 대학생 4명

우선, 얼굴을 마주 대하는 직접적인 교류(9월)  
한일의 생활문화 소개, 미니 의견교환  
학생들끼리 서울시내를 걸어다니며... 친해짐  
(直接交流、知り合いになる、親しくなる)

10월~11월

영화「안녕·사요나라」를 각각 나라에서 보고  
실명으로 감상문 교환 実名で感想文交換  
감상문, 토론사진, 각 나라의 교과서·시험문제등을 보냄

서울에서 직접대면교류(2016ソウルで)  
얼굴·이름을 알게 됨, 직접적인 관계

교류수업 실시까지의 전체적인 흐름  
交流授業実施までの全体的な流れ



- 1) 한국에서는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친해짐  
단 하루의 교류였지만, 전원개개인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게 됨.
- 2) 계속해서 영화로 교류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/ 제안
- 3) 일본과 한국에 있으면서개개인 SNS 토크
- 4) 명확하 안녕 사요나라로 결정.
- 5) 「무섭다」「그래도 교류해보고 싶다」가 일본 학생들의 반응. 「怖い」「しかしやってみたい」

## 한국측참가자 두개의 대학에서볼런티어 모집

韓国:二つの大学からボランティア募集



## 일본측 참가자 2016년 해외 필드워크(한국)수강자 5명 (2015년도 동아시아 비교문화론 이수)

日本:授業一貫として5名が参加、(海外フィールドワーク)



### 감상문교류(일본측의 예) 感想文交流(日本側の例)

- (1) 영화를 보고 감상쓰기
- (2) 각자의 감상문을 일본 학생끼리 공유·교환.
- (3) 감상문을 한국에 보냄·한국에서 감상문이옴.
- (4) 번역된 한국학생들의 감상문을 읽음.  
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2차감상문을 씀.
- (5) 한국에 2차감상문을 보냄—한국에서 2차 감상문이 옴.  
번역된감상문을 읽음, 이야기하기.
- (6) [내가 만약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] 생각하고 쓰기.  
마지막 인사문·사진·교과서의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보냄.

### 한일교류(감상문교환)수업 I → II의 차이 日韓交流(感想文交換)授業 I → IIの違い

2010년 → 2016년

I 학생은 문장/감상문만으로 교류  
→ II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교류/ 친해짐

I 뉴스와 책에서 보는 전혀모르는 타자가 아니라, 「수업」이라는 상황속에서 「중개자인 교사」를 통해서 교류  
→ II 「수업」의 틀속에서 「중개자 교사」를 통해서 교류하며, 개인적으로도 교류

I 관계를 해본적이 없는,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, 「지인의 지인」레벨  
→ II 이미 어느정도는 아는 사이가 된 상태에서, 얼굴과이름을 연상하며 감상문을 씀.

## Ⅱ의 교류의 특징 Ⅱの交流の特徴

• 일본측학생들은 영화의 내용을 알고있었기 때문에, **심적부담**이있었다.그렇지만, **진실**(한국학생들의 감상)을 알고싶었다.

• **감정·갈등의 체험의 프로세스**는 I 과 비슷하다.  
(자기가 상처받음·불쾌해짐→생대의 감상을 읽고 상대의 상처를 본다→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조정)

• 감상문을 읽고 얘기 하면서「우는모습」  
• **말 표현 하나하나에 민감**하게 반응하고 변명하고 설명한다.  
• 나를 싫어하면 어찌지~  
• 전부 솔직히 못쓰고 부분만 쓰기

• 마지막엔 서로 변명(?) 과 감사의 인사  
(느닷없이?)미래를 향한 마무리의 분위기  
이야기하면서, 해결 하면서, 미래를 향해 가자~.

• 확실하게 공부해야하는 것의 중요성, 역사에 대한 흥미  
• 상대가 인정해주면 치유가되는 느낌~

## 2010년과2016년의 한국학생들의1차 감상문을 「동아시아비교문화론」수강생들이 읽고 쓴 감상 IとⅡの感想文を読んだ他の学生の感想

- 2010년의 글은 문체가 **굉장히 날카롭고 심한 표현**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.「눈에서 뜨거운것이 흘러 나왔다」와「일본을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다」는 등 **직접적으로 감정이 많이 쓰여있어서 (내가, 일본이) 질책받는 느낌이었다.**
- 반대로2016년의 글은, **어딘가 조심스럽고 말 하나하나를 골라서 쓰고 있는 것이 전해져** 왔다.문장의 어딘가에는 꼭「일본의 문화와 음식을 좋아한다, 그러나~」라는 식으로 쓰여있어서, **그것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의 완충재의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.**

<문장의 논점>에 대해서도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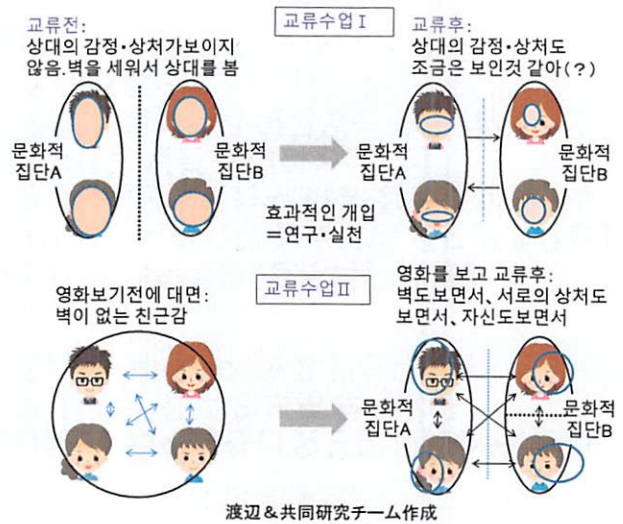
- 2010년의 학생은「군국주의였던 일본및 야스쿠니 신사」를 비판적으로 쓰고 있으나
- 2016년의 학생은「야스쿠니신사가 전범을 영령으로 모시고있는것, 조선사람을 일본인으로 합사하고 있는것, 거기에 집요하게 참배하는 정부관계자」를 비판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다.  
(전체부정이 아니라 **부분 부정**이라는 뜻)

- 2010년의 학생은, 「일본이」「야스쿠니가」처럼 대상을 개인으로 보지않고, **집단화**해서 얘기하고 있는데
- 2016년의 학생은「일본의 우익은」「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정부관계자는」처럼, 일본이라는 나라를 집단화 하면서도 「친해진 일본의 대학생」과는 **개별화**해보려고 하고있는 분위기가 느껴졌다.

- 2016년의 교류수업은 끝났지만 아직구체적인 분석작업은 하지 못한 상태

이문화이해·다문화공생  
타자이해·타자와 함께  
실천활동·연구

- <보이는 것이 다르다> <보이지 않는다>
- <대칭의 구조를 일부러 만든다>
- <다른 방향의 상대가 보인다>
- <상대방으로부터 보는 자신이 보인다>
- <자기와 상대가 보인다>
- 새로운 **갈등·엇갈림·흔들림** → 關係調整へ



山本登志哉 (2015) 文化とは何か、どこにあるのか、対立と共生の心理学、新曜社

Pian, C. (2017) What happened in dialogical classes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?: An analysis of exchanging classes between Chinese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, *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*, 51(3), 391-402, DOI: 10.1007/s12124-017-9393-7 (실천연구논문: 일중)

Sakakibara, T. (2017) Intercultural Understanding through Intergroup Dialogue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, *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*, 51(3), 359-378, DOI: 10.1007/s12124-017-9390-x (실천연구논문: 일중)

Tajima, A. (2017) "Dialogic vaccine" to bridge opposing cultural viewpoints: Using Bakhtin's view on dialogue and estrangement, *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*, 51(3), 419-431, DOI: 10.1007/s12124-017-9394-6 (코멘트논문)

Watanabe, T. (2017) The Story-Presenting Method: A Method for Constructing Multiple Viewpoints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, *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*, 51(3), 403-418, DOI: 10.1007/s12124-017-9391-9 (실천연구논문: 일중)

Yamamoto, T. (2017) Cultural Psychology of Differences and EMS: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constructing Culture, *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*, 51(3), pp345-358, DOI: 10.1007/s12124-017-9388-4 (이론논문)

Oh, S. (2017) [Dialogical Exchange Class using Movies fo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 Korean and a Japanese University](#), *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*, 51(3) pp379-390, DOI: 10.1007/s12124-017-9392-8 (실천연구논문: 일한, 2010년의 수업실천소재)



# 韓國·日本·中國 多文化理解 教育方法 國際 Seminar

■ 주관 : 日本學術振興會(多文化理解 教育方法 研究Team)

■ 주최 :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/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

■ 일시 : 2017. 8. 27. 14:00~18:00

■ 장소 :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

全日 151 所

韓國 慶尙 道 環 境 學 院

■ 일정 : 사회- 崔 順子

金

14:00 18:00 時 間

● 김주영 센터장 외 參加者 自己紹介

1. 張 仁子 (韓國) : 韓國多文化教育 ( 30分 + 通譯 30分 )

2. 山本登志哉 (日本) : 文化理論 紹介 (15分+通譯 15分)

3. 片 成男 (中國) : 日中交流授業 紹介 (15分 韓國語)

4. 吳 宜兒 (韓國) : 韓日交流授業 紹介 (15分 韓國語)

● 發表 後 質疑 應答

○ 韓

95年 時 候 子

四 女 五 子 大 小 幼 兒 教 育 研 究 所 長

會 務 總 三 次 研 究

9 年 前 的 多 文 化 理 解 研 究 會

○ 山 本 登 志 哉 院 長 (各 國 的 研 究 所)

○ 日 本 的 研 究 所 的 國 長

○ 中 國 文 子 研 究 所 的 研 究 人 員 的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↓  
2017  
7  
所  
研  
究  
所  
長  
研  
究  
所  
長

○ 仁子

○ 仁子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○ 韓國 文 子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○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○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○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○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○ 研 究 所 的 研 究 所

○ 研 究 所 的 研 究 所